

‘노조법 개정, 공안탄압 중단’ 전국 행진 보름째

금속노조 행진단 수도권 접어들어 ... 시민들에게 윤 정권 심판 호소

금속노조가 ‘노동시간 개악 중단’, ‘노조법 2·3조 개정’, ‘공안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며 전국 도보 대행진을 시작한 지 보름째를 맞았다. 거제에서 출발한 노조 행진단은 어느덧 충청을 거쳐 수도권에 접어들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 등 행진단은 4월 26일 경기도 안산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과 공안탄압 분쇄를 위해 5월 1일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힘찬 발걸음을 이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유상기 금속노조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우리 노동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과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에 기대할 게 하나도 없다. 노동에 완전 무지한 정권이다”라며 “탄압에 항쟁으로 맞선 정신으로 행진 투쟁을 벌이면서, 안산 시민들에게 윤 정권 심판을 호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민규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 수석부분회장은 “한국와이퍼분회 동지들은 오늘도 24시간 현장을 사수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라면서 “노동자 연대와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길이 노동자가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행진단은 “살인 노동 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퇴근 선전전을 전개하며,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시간 개악·공안탄압 중단 등 절박한 요구를 알렸다.

앞서 금속노조 행진단은 4월 25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중식 선전전, 화성시 시내와 공단 일대 행진, 현

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퇴근 선전전을 전개하며,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시간 개악·공안탄압 중단 등 절박한 요구를 알렸다.

금속노조 행진단은 4월 27일 인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서울에서 행진을 진행하고, 5월 1일 노동절 서울대회에서 행진을 마무리한다.



초기업(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한 국민동의 입법청원 위원장 담화문

민주노총은 하반기 입법화를 목표로 초기업(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한 국민동의 입법청원을 시작합니다.

▲산별교섭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단체 범위 확대 ▲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및 단체교섭 대상 확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및 초기업교섭 활성화 ▲산별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 촉진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및 효력확장제도 개선 등 초기업(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요구가 주요 내용입니다.

노동자 내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노동자들은 기업 규모에 따라 임금 격차가 커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업별 교섭구조로는 규모에 따른 격차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전두환 군사 정권의 노조와해 정책의 결과물인 기업별 교섭구조는 오히려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입니다. 반대로 초기업 교섭, 산별교섭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하는 가장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해, 사회의 통합을 위해 산별교섭으로 나아갑시다. 5월 1일 세계노동절을 시작으로 산별교섭 활성화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합니다. 조합원들의 일치된 힘으로 5만의 입법청원 동의, 빠르게 끝냅시다. 투쟁!

2023년 4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윤장현

